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훠**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湖南新聞

보성 참다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사업설명회

등록 방법 및 절차 · 등록 법인 구성 등 토론

보성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 참다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관계자와 관내 5개 참다래 법인 회장 등 농가대표 15여 명이 참석해 보성 참다래 지리적표시 등록 방법 및 절차와 등록 법인의 조직체계 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보성군에서 참다래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로 40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 생산량의 20%, 전라남도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 참다래 재배 농가는 329농가(재배면적 209ha)로 연 110억 원의 농업소득을 창출할 정도로 효자 종목이다.

이번 보고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사)향토지적재산본부 김영민 본부장은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국내 현황과 등록 절차 등을 설명하며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게 되면 EU와 FTA체결로 유럽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다며 참다래 수출이나 해외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가의 역할과 향후 소득창출과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보성 참다래가 지리적 표시 등록과 함께 우리군의 특화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고품질 참다래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60년의 여성농업인 사회적 역할 인정 받아

2018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

순천시는 '농촌자원 활용 생활개선 60년 역사기록물 경진대회'에서 지난 60년간의 농촌의 발전과 농촌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을 남긴 생활개선회 한하숙(순천시 연향동 · 74세)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마을부터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개선회구락부로 출발한 생활개선회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한하숙씨는 가계부를 농가용 가계부가 보급되기 이전인 1974년부터 갱지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1984년 농촌진흥청에서 시작한 농가용 가계부 기록지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비목별로 더욱 꼼꼼히 작성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생활지도사업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생활개선회는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해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2015년에 현재의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로 통합됐다.

순천시에는 현재 (사)한국생활개선 순천시연합회에 3백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개선운영위원회, 순천음식연구회, 우리가락연구회, 소비자생활개선회 등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다.

순천시 생활개선연합회는 농촌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금도 배우고 실천하면서 역량을 계발하고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농촌여성 공감소통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로 어린이들의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인 '꿈나무 문화교실', 어르신들의 건강 · 취미생활을 위한 '실버건강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용강정수장 활성탄 투입장치 설치

광양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용강정수장에 성능이 향상된 자동 활성탄 투입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고 가동에 본격 들어갔다.

활성탄을 활용한 정수처리시설은 상수도 원수(原水)에 포함된 조류와 독성물질,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의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농도의 분말 활성탄을 주입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활성화 투입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본격 가동에 앞서 진행한 시운전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충분히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활성탄 투입장치는 시간당 최소 5kg에서 최대 50kg의 분말 활성탄을 원수에 투입할 수 있다. 또 투입량과 시간에 대한 정밀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원수유입량과 연동이 가능하다.

광양=김승호 기자

함평군, 전남 양성평등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함평군이 전남도가 주최한 2018 양성평등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남녀 모두를 정책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는 성 주류화를 장려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평가를 실시했다.

함평군은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성인지 정책 추진 우수사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포럼 개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 순천대학교 교수)가 6일 오후 6시부터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이슈포럼을 개최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문제 대한 인식 가운데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미세먼지(82.5%)로 제철소 및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광양만권 지역 역시 시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이슈화됨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장재연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미세먼지 없는 도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피해사례, 건강과의 상관관계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저감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강연 후에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장인 안삼영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성 순천시 환경보호과장, 박수완 (사)광양만권녹색연합 사무국장, 박성훈 교수(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가 패널로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도 실시했다.

송경환 상임의장은 "미세먼지는 행정기관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지속가능협의회는 분야별 중요한 주제를 선정,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슈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황경석 기자

광양경제청,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양세풍산업단지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자문위원들은 세풍산단과 경도지구의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사업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세풍산단은 광양제철에서 여수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인 철강?화학산업을 고도화하여 미래 신산업 생산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능성화학 및 초경량 금속소재 등 특화업종을 유치하고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 등을 제안하였다.

경도지구는 진입도로인 연륙교 개설사업이 지난 9월 산업부 심의를 통과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므로 올해 말 수립될 마스터플랜에 워터파크, 국제컨벤션센터 등 글로벌 관광레저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제적 해양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광양만권의 투자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갑섭 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미국 · 중국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우리 광양만권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섬진강변길 자전거위험도로 정비

구례군은 행정안전부의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연인원 136명을 동원해 위험도로에 대한 통행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7개 노선 35.87km(구례 논곡리 곡성경계 ↔ 간전 중대리 하동 경계)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서 위험도로로 판단되는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된 섬진강 제방도로 4.9km(사성암 주차장 ↔ 문척 월평마을)에 대해서는 차량과 자전거의 통행량을 조사한 후 차량 통행량이 적을 경우 차량을 통제하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관광객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 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